

Global Defense News

2016년 10월 4일 (화) 제1504호

국방기술품질원 방산정보팀은
지난 Global Defense News와
더 자세한 해외기술정보를 온라인으로
제공하고 있습니다.

□ 인터넷망 (<http://www.dtaq.re.kr>)
» 글로벌다펜스뉴스

□ 국방망(<http://dtims.dtaq.mnd.mil>)
» 과학기술동향
(Global Defense News)

 **국방기술품질원**
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
www.dtaq.re.kr 055-751-5370,5386

■ 무기체계 소식

C4ISR 미 DARPA, Squad X 핵심기술 사업 2단계 추진

기동 미 GDLS사, 화물수송 로봇 MUTT 중량 확장형 추가

함정·항공 러시아, Yak-152 기본훈련기 첫 비행 완료

화력·방호 벨라루스 BSVT사, ADEX 2016에서 폴로네즈 MLRS 최초 공개

전재·인용 시 '국방기술품질원'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미 DARPA, Squad X 핵심기술 사업 2단계 추진

- 미국 DARPA는 기존 무기와 무인체계를 이용하여 소규모 보병 분대가 보다 효과적이고 살상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.
 - 록히드마틴사와 1,070만 달러 규모의 스쿼드 X 핵심 기술(SXCT) 사업 2단계 계약을 체결
 - ※ SXCT : Squad X Core Technologies
 - 현재 미 소총 분대는 제한된 탐지 능력과 좁은 시야로 상황인식능력이 떨어지는 등 전투력이 부족하다고 평가
- SXCT 사업의 목표는 보병 분대의 상황인식능력을 제고시키고, 정밀 교전, 비활동적 교전, 분대 탐지, 분대 자율활동 등의 능력을 개선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임.
 - 정밀 교전은 1,000m 거리의 위협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미사일 또는 첨단 40mm 유탄에 관심
 - 비활동적 교전은 300m 이상의 범위까지 전자전, 사이버전, 광학전 등의 능력으로 적의 지휘, 통제, 통신 체계를 파괴
 - 분대 탐지는 분대가 정상적인 속도로 기동하면서 1,000m 거리의 잠복한 인적 위협을 정확히 탐지
 - 분대 자율활동은 UAV, UGV와 같은 무인체계를 활용하여 GPS가 가용하지 않은 환경에서 분대원을 6m 이내로 식별



Squad X 핵심기술 사업 개념

| 출처 | Lockheed Martin pushing new infantry technology, militaryaerospace.com, 2016. 9. 27.

미 GDLS사, 화물수송 로봇 MUTT 중량 확장형 추가

- GDLS사가 MUTT로 알려진 화물수송 지상 로봇 종류를 2013년 개발된 소형 4x4에서 더 무거운 6x6 및 8x8 형상으로도 확장함. ※ MUTT : Multipurpose Unmanned Tactical Transpor
 - 적재하중 능력은 4x4가 장비와 무기를 수송하여 보병분대 짐을 덜기 위해 약 600lb로 설계되었고, 6x6이 900lb, 8x8가 1,200lb로 증가
- MUTT 모든 체계는 전기 구동식으로 보조동력장치를 탑재하여 필요시 배터리 충전하고, 운용 모드가 원격제어 또는 병사의 지지장비에 부착된 연결끈같은 DFT(Dismounted Following Tether) 모드로 동일함.
 - 6x6과 8x8 두 모델은 기동성 강화위해 표준 차륜 또는 밴드궤도 장착 가능
 - 복잡성을 피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반자율 또는 자율 특성 미탑재로 전자광학장치, 라이다 및 레이더, 자율성에 필요한 강력한 처리장치 같은 고가 장비 모두 제외
- 미국 육군과 해병대가 2016년 여름 미개별 능력시험의 일환으로 MUTT를 시험했으며, 육군은 7월에 2주 동안 하와이에서 개최된 PACMAN-1 훈련의 일환으로 장비수송 능력과 무장 로봇 능력의 2개 개념을 총 3대의 MUTT로 시험함.
 - M2 .50 Cal 기관총 탑재한 MUTT 1대로 단 한명의 병사가 탄 수천발 보유하고 사정지역 확보하므로 기존 .50 Cal·실탄·삼각대 수송·배치에 보통 병사 5명 필요한 것과 크게 대비
 - 60mm 박격포 팀에서 1대를 이용해 준비 시간 상당히 단축



MUTT

러시아, Yak-152 기본훈련기 첫 비행 완료

- UAC는 야코블레프사와 이르쿠트사가 개발·제작한 Yak-152 훈련기 시제기의 첫 비행이 완료된 것으로 발표하였음.
 - Yak-152는 러시아군이 운용중인 Yak-52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개발되고 있음.
 - 개발기간 중 탑재엔진의 교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약 1년간 개발 지연
 - 여러 가지 형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, 중국이 운용할 L-7모델도 포함되어 있음.
- Yak-152는 단발 프로펠러로 추진되며 복좌형태의 조종석을 가진 기본훈련기임.
 - 독일의 A03 4행정 피스톤 엔진을 장착할 예정
 - 최대속도 500km/h, 항속거리 1,000km의 성능으로 10,000 비행시간의 수명
 - 이 훈련기는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군 및 민간 조종사 양성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



착륙중인 Yak-152 훈련기

벨라루스 BSVT사, ADEX 2016에서 폴로네즈 MLRS 최초 공개

- BSVT사가 아제르바이잔 ADEX 2016 방위산업전시회에 폴로네즈(Polonez) MLRS를 최초로 일반에 공개하였음.
 - 폴로네즈 MLRS는 2015년 5월 9일 민스크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
- 신형 폴로네즈 MLRS는 MZKT-7930 8x8 차체에 장착됨.
 - 폴로네즈는 자국 방산업체에서 벨라루스 육군용으로 특별히 개발되었으며, 중국 CALT에서 생산한 A200 301mm 장거리 고정밀 로켓을 사용 ※ CALT : China Academy of Launch Vehicle Technology (中国运载火箭技术研究院)
 - A200 로켓은 중량 750kg, 길이 7,496mm이고 날개 전개 시 폭은 615mm
 - 차량의 최대 주행속도는 시속 70km
 - 로켓의 유도체계는 관성 및 GPS 보장체계를 혼합하여 사용하며, 사격 정확도는 HEF 및 HE 탄두 사용 시 30m
 - 로켓의 사거리는 120~300km이고 8개의 서로 다른 표적에 로켓 8발을 50초 이내에 연속으로 사격할 수 있으며, 재장전에는 8분이 소요



폴로네즈 MLRS